

# 광주 대촌·수춘천에 '생태계 교란종'...남구, 제거 사업

환삼덩굴·도깨비가지·붉은귀거북 등  
환경부 지정 동·식물...서식 공간 잠식  
10월까지 현황 모니터링·포획 병행

광주 남구는 31일 "대촌천과 수춘천 일원에서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동·식물 교란종 제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촌천과 수춘천, 물빛 근린공원 일원에서 환삼덩굴과 도깨비가지 등 생태계 교란 식물과 외래종인 붉은귀거북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동·식물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종으로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적응력이 빨라 토종 식물과 동물의 서식 공간을 빠르게 잠식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하천 주변을 단기간에 훼손해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삼덩굴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주변 식생을



광주 대촌천과 수춘천 일원에서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종이 확인됨에 따라 남구가 제거 사업에 나섰다. 사진은 대촌천 주변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모습. <광주남구 제공>

덜어 토종 식물의 광합성과 생육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덩굴성 교란 식물로 여름철에는 하천 산

책로와 제방 주변까지 빠르게 확산해 경관 훼손과 보행 불편도 초래한다.

도깨비가지는 가시가 많고 번식 속도가 빨라 농경지와 하천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는 외래

식물로 다른 식물의 생육을 억제하고 농작업 피해까지 유발한다.

붉은귀거북은 하천과 저수지 등지에서 토종 어류와 양서류의 먹이를 빼앗거나, 어린 개체를 포식해 토착 생물 생존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동물로 꼽힌다.

남구는 토착 생물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대촌천과 수춘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교란종 분포 현황 모니터링·제거 작업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

교란 식물은 뿌리째 제거한 뒤 사후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며, 붉은귀거북은 전문 장비로 포획할 방침이다. 민간 환경·자생단체 등과 협력해 생태계 교란종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하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생태계 교란종은 초기 제거와 지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과 함께 토종 생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 서구, 하절기 모기 등 위생해충 방역 본격화

18개 동 '기동반' 편성...6-10월 활동  
주거 밀집지역·하수구 등 취약지 중심

광주 서구가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해충 방역소독 활동에 본격 나선다.

31일 서구에 따르면 기온 상승으로 모기 등 위생해충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앞두고 보건소와 관내 18개 동 방역기동반으로 방역단을 편성해 6-10월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이번 방역에는 방역요원 40여명이 참여해 광주전반, 도시공원 산책로, 경로당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시설과 주거 밀집지역, 하수구·배수로

주변 등 해충 발생 우려가 큰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펼친다.

특히 폐지 수거·저장 장소와 노후 주택가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연무·분무소독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연무소독은 약품을 미세한 안개 입자로 뿌리는 방식이며 분무소독은 하수구와 배수로, 풀숲 등 해충 발생 우려 지점에 약제를 직접 살포한다.

환경오염과 인체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서구는 2022년부터 기존 연막소독보다 약품 사용량과 냄새가 적은 친환경 연무소독과 분무소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서구는 본격적인 방역에 앞서 지난달 방역종사자를 대상으로 약품 취급 요령, 장비 사용법,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마쳤다.

이을러 서구보건소 키카오톡 채널 '건강백세봇'을 통해 관내 해충피해 자동분사기 위치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을 착용하고 해충피해를 사용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상 기자

## 동구,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광주 동구는 31일 "2026년 노후 중소형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은 2006년 이전에 준공돼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 개선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근무환경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등 3개다.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 분야에서는 옥상 방수, 외벽 보수, 단지 내 도로·주차장 정비, CCTV 및 보안등 교체 등 공용부분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근무환경 개선 분야는 휴게시설 조성과 냉·난방기 설치 등 근로 여

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구는 최근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용시설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동구청 주거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인재영 기자

## 북구, 올해도 '희망아카데미' 운영

송길영·문형배·이홍렬·유성호 초청

광주 북구가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주민들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희망아카데미'를 올해도 운영한다.

31일 북구에 따르면 '2026년 북구 희망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한다.

희망아카데미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명사들의 강연을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2007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 ▲문학배 전 헌법재판관 ▲이홍렬 방송인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 등 4명이 강연자로 나선다.

첫 강연은 다음달 16일 송길영 작가가 '시대

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와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9월2일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저서 '희의에 대하여'를 바탕으로 공동체 속 희의와 배려의 가치를 전한다.

10월13일에는 방송인 이홍렬이 '웃음이 주는 긍정의 힘과 소통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11월5일에는 유성호 교수가 '죽음에서 배우는 삶의 가치'를 주제로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공유한다.

강연은 오는 11월까지 북구청 회의실과 북구 문화센터 등에서 총 4회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희망아카데미가 주민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영감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찬용 기자

## 광산구, 외국인 주민 '번역 서비스' 확대

광주 광산구가 외국인 주민의 교통 행정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 향상을 위해 번역 서비스를 확대한다.

31일 광산구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차량등록 관련 주요 민원 절차를 안내하는 글로벌 안내 책자를 최근 제작했다.

글로벌 차량등록 안내서에는 차량 신규·이전

등록, 변경 등록, 말소 등록 등 관련 주요 민원 절차와 자동차 종합검사, 의무보험 등 주요 유의사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담았다.

특히 외국인 주민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교통행정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광산구는 중국어를 시작으로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3종 안내 책자를 순차 제작할 계획이다. /이윤근 기자

2026

#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